복음신문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표 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毎月一日発行）
2024년7월1일（월）　제839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 양영우・편집인 / 정수환
인쇄소　青丘文化社

어린이주일 설교

세미한 소리

<열왕기상 19:8~15>

김 성 태 목사 (동경교회)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호렙' 이라는 산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는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그는 40일간 가혹한 광야를 홀로 걸어서 이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육신의 피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육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쳐 있었고, 주(야웨)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엘리야가 도착한 산의 다른 이름은 '시내' (Sinai)입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기 위해 주(야웨)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고,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을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이 산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신이 지쳐 있고 신앙이 흔들리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산' 에서 주(야웨)와 만나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은 광야를 헤매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냈고,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하여 이 산까지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9절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주(야웨)를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산에 있는 굴(동굴)에 들어가 그곳에 머물며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동굴 속에 머물며 나오지 않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가 "무엇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과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으로부터 도망하고 있지만, 사실 주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까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숨어버리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그렇게 숨어있는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11절 전반) 엘리야는 동굴에서 나가야 합니다. 주 하나님은 이 산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엘리야가 절망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능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체험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그리고 엘리야를 동굴에서 나오게 하고 다시 주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것은 '무엇' 이었는지에 주목하며 이어지는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주(야웨)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자연현상들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의 현현(顯現)' 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왕상18 : 38, 사29 : 6, 겔1 : 4 등 참조). 그러나 본문은 이런 현상들 가운데 '주(야웨)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엘리야는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주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동굴로 도망하여 나오지 않았던 엘리야를 움직인 것은 앞서 일어난 현상들과는 전혀 다른 '세미한 소리' 였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12b~23절)

맹렬한 자연현상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후에 주 하나님은 고요함 속에서 엘리야에게 속삭이듯이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모든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엘리야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깨닫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주 하나님의 '그 소리' 를 들은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긴 했지만 자신의 발로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대면을 시작합니다(14~15절).

우리는 7월14일에 "청년주일" 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2024년은 청년주일 제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를 통하여,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교회를 떠나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봅니다.

절망과 고독에 시달라며, 몸도 마음도 피폐하여, 주(야웨)를 향한 신앙에도 금이 가 있었던 엘리야는 동굴로 도망하여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다가가셨고, 이름을 부르셨으며, 엘리야의 상태를 깊이 이해하시고 "세미한 소리" 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엘리야에게 속삭이시는 주 하나님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의 아픔을 보시고 다가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교회와 멀어져 있는 청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그 청년들 각자가 안고 있는 상황, 몸과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보려고 하고 있을까요? 70번째 청년주일에 드려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세미한 소리" 가 되어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2,500円
（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韓日対照聖書販売

各ページの左に韓国語（改革改正訳）、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A5版変型・1760ページ、革製
●価格：4,000円（消費税・送料込）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전국여성회

제64회 정기대회 개최

신 회장에 송복희(나고야)씨를 재선

2024년 6월 17일(월),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제64회 정기대회를 오사카교회에서 개최하였다.

제1부의 개회예배는 김필순목사(제5대 총무)의「흐름에 맞서서(누가 18장1 ~ 8절)」를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고, 정연원목사(오사카)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배찬원으로 박영원, 정인선, 김금순, 김마리장로가 봉사하였다.

제2부에서는 내빈으로서 KCCJ총회장 양영우목사의 축사가 있었고, 이어서 제63회 정기대회회의록, 위원회록, 총괄, 각국, 각 지방회, 회계 결산등의 보고가 승인되었다.

제3부에서는 임원 개선, 활동방침안과 헌의안, 예산안이 승인되었다.

폐회 예배에서는 박영자목사(제6대 총무)의「여기가 교회인 것이다!(행27장33 ~ 38)」를 제목으로 설교가 있은 후에 축도로 폐회하였다.

제64회 정기대회에서 선출된 신위원은 다음과 같다.

회회장 : 송복희(나고야) 부회장 : 최미혜자(무코가와)
서기 : 고경미(오사카) 부서기 : 이정자(나고야)
회계 : 이민례(니시아라이) 부회계 : 김혜진(가와사키)
교육국장 : 이호자(고쿠라) 선교사회국장 : 강지선(오사카)
재정국장 : 이나나(히라노) 마음케어국장:윤풍자(고베)
관동회장 : 이은주(요코하마) 중부회장 : 김은숙(도요하시)
관서회장 : 김인희(교토) 서부회장 : 양율자(고베)
서남회장 : 박현숙(후쿠오카)
회계감사 : 박영원(시나가와)、유정혜(무코가와)
총무 : 이시바시 마리에 (보고 : 고경미 서기)

2024년 한일연합 이단/사이비(컬트) 대책 세미나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가 주최

지난 6월20일-21일 한국 대구제일교회에서 2024년 한일 연합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가져 일본에서는 일본기독교단을 비롯하여 오랫동안 컬트 문제로 함께 활동해 왔던 제 교단 대표들과 함께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는 선교위원장 조영철목사와 선교위원 김병호목사가 출석했다.

금번 세미나를 주최하여 초청한 곳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의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로서 그 시작이 30년 전 일본에서 유명 연예인의 통일교 합동결혼식 및 영감상법 등이 일본의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피해자를 구원하고 지원하는 일을 위해 일본기독교단을 중심으로 '통일교 원리 문제 연락회' 가 조직되어 활동해 왔다. 한국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이단/사이비 대책 위원회와는 1년에 한 번씩 상호 방문하여 정보를 교환하며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통일교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 종교들이 한국에서 들어와 교회를 혼란케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게 됨으로 이 연락회의 명칭을 〈컬트 문제 기독교 연락회〉로 명칭을 바꾸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한일 합동 세미나도 2004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개최하고 있다.

금번 대구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한국측 발제자로 나선 황은택목사(예장 통합)는 목사의 아들로서 대학때에 신천지에 미혹되었다가 탈퇴하여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고, 목사가 된 후, 신천지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의 활동과 경험을 발표하였다.

일본측 발제자로서는 일본기독교단 센다이 미야시로노(仙台宮城野)교회 사이토 아츠시(齋藤 篤)목사가 맡았다. 사이토목사는 그의 저서 <내가 '컬트' 로 왜곡한 지배는 바로 옆에 있다. (私が「カルト」にゆがんだ支配はすぐそばに)」를 소개하면서 컬트란 무엇이며, 컬트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며 컬트와 이단의 다른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물음을 하였다. 사이토목사는 이전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는데 탈퇴후에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목사가 되어 연락회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날에는 신천지의 이만희교주를 성역화하고 있는 지역(경북 청도군 풍각면 현리)을 방문하였으며 이 모임은 내년에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보고 : 조영철)

서남지방회

김승희 목사 위임식 거행

시모노세키교회에 담임목사로서 부임

지난 2024년5월26일(주) 시모노세키교회에서는 김승희목사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김성효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신치선 목사(지방회장)가 '승리하는 목회자' (출애굽기17 : 8~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김성효목사가 김승희목사를 소개한 후, 신치선목사의 사식으로 위임식이 진행되어, 서약, 기도, 그리고 선포가 이루어졌다. 이혜란 목사(우베교회)와 임명기목사(후쿠오카교회)가 권면을 하였고, 윤선박목사(서남지방회 부회장)와 모치하라 켄이치목사(일본기독교단 야마구치니시분쿠위원장), 일본그리스도교회 시모노세케교회 이병두목사가 축사하였다.

금번 시모노세키교회 담임목사로 위임받은 김승희목사는 1964년 일본 효고현에서 태어나 오사카니시나리교회 협력목사, 니시노미야교회 담임목사, 오카야마교회 담임목사, 오리오교회 협력목사로 사역했다. 가족으로는 아내 카쿠죠카오리(角城かおり)씨가 있다. (보고 : 조현규)

<住所変更>

崔栄信 隠退牧師
〒810-0066 福岡県福岡市中央区福浜1丁目1-14
市営福浜住宅14棟711号

관서지방회

"어린이들의 모임" 개최

7교회에서 29명의 어린이들이 참가

6월 9일 총회 어리니 주일에 오사카교회에서 간사이지방회 교육부 주최로 어린이 모임이 개최되었다. 7교회에서 29명의 어린이와 어른을 포함하여 74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1부 예배는 요시이 히데오 장로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2부에서는 그룹으로 나뉘어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이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역할 분담하여 열심히 읽어주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고등부 학생들은 핸드벨 등 악기를 이용해 멋진 찬양을 들려 주었다.

3부는 짧은 시간에 연습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가능성과 에너지를 크게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저출산이 문제시되는 현대에 있어 아이들이 희망의 빛임을 새삼 실감할 수 있어 감사하다.

(보고 : 아라이유키 목사)

관동지방회와 중부 지방회

교역자 합동 교류회 열어

2024년 6월 24일(월)~25일(화)에 걸쳐 나가노현에서 관동지방회 · 중부지방회 교역자 교류회가 개최되어 16명(각 지방회 8명)의 목회자가 참가했다.

나가노교회에 모여 김용소 관동지방회 회장이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여 개회예배를 드렸다. 나가노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먹은 후, 여러 관광지를 방문했다. 특히 식민지였던 한반도에서 강제연행된 사람들을 포함해 전쟁 말기에 '수도 이전' 을 위해 파놓은 인공지하동굴인 마쓰시로 대본영을 방문한 것은 뜻 깊었다. 1944년 11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초등학생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원된 이 공사가 가져온 폭력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깊은 질문을 참가자 모두가 공유한 시간이었다.

저녁 식사 후 교류 시간에는 조선족, 조선적, 재일동포, 한국 출신 등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선교 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신의 경험에 뿌리를 둔 다양한 경험의 교류의 장은 형식적인 회의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인간적인 '만남' 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둘째 날은 관광 후 치쿠마비전교회에서 최화식 중부지방회장이 시편 133편 1절을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하며 치쿠마비전교회 신도들의 환대를 받았다.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교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만남' 과 서로 소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각 지방회와 총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자리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보고 : 김신야)

청년주일 제정 70주년

함께 걷고, 미래로 이어가는 믿음

신도위원장 **양 양 일 장로**

2024년 7월 14일, 청년주일 제정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기념일을 맞아 전국적인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의 성장과 신앙 계승을 기원하며 교류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음신문을 통해 전국 교회 관계자 여러분께 지방회-개교회 차원의 청소년 육성과 청년회 지원에 대한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신도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청년회전국협의회(전협)를 비롯한 각 지방회 청년회연합회의 재건 지원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청년-장년(30대, 40대 성인)의 신도 감소와 교회 운영의 위기 상황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신도위원회로서는 이 과제 극복과 해결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1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우리 총회는 옛 식민지 출신과 그 후손인 재일동포의 민족적 신앙공동체로 걸어왔습니다. 지금은 새로 일본에 온 한국인과 일본인 신자들도 소중한 동료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베트남인, 브라질인 등 아시아계, 남미계 신도들의 증가로 다양한 뿌리를 가진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터전' 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신도 감소와 신앙 계승의 어려움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그동안 교회가 이중문화, 이중언어 공존, 신앙 계승, 다양성 실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과 교회의 미래 구상 수립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려움을 가져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있다. 동시에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희망을 만드는 교회 활동에 도전해야 한다. 훗날 돌이켜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좋았다' 고 말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대에 실현하기 위해 행동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원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는 말씀에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는 말씀은 믿음이란 고난을 극복하고 얻는 희망임을 확신하게 해준다.

다시 한 번 청년주일 제정 70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신도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라나 타! (주여 오시옵소서)

2024년 韓·日·在日교회 URM-이주민 국제심포지엄 공동선언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 · 평화위원회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URM(도시농촌선교)위원회,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외기협)는 韓 · 日 · 在日교회가 처한 과제를 확인하고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4년 5월 13일 – 15일, 한국 대전 빈들공동체교회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요구하는 韓 · 日 · 在日교회의 선교과제" 라는 주제로 2024 한 · 일 · 재일교회 URM-이주민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현재 일본 사회에서는 평화헌법 9조를 포함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 국가의 정책이 타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요즘은 헌법 역시 일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려하고 있다. 특히 '평화를 유지하며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할 것' 을 선언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일본 내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난민 신청자를 국외 추방하고자 하는 개악 입관법이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영주자격취소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는 일본 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분명한 차별 정책이고 분단, 배제에 의한 군사국가로의 포석이다.

한국 사회 역시 평화가 위협받고 갈등이 고조되는 위기 가운데 있다.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자 정상회담으로 사실상 한미일 안보동맹이 구축되는 한편, 적대적인 대북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와 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갈등의 골 역시 날로 깊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고용 유연화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평등과 차별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조합을 불법화하고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 등 적대적인 노동정책이 더욱 노골화되면서 노사갈등 뿐 아니라 노정 갈등 역시 깊어지고 있으며, 외국계 투자 기업의 현지 노동자에 대한 횡포, 이를 묵인해 주는 국내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무관심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빼앗긴 채 고통받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40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외면한 채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등 단속과 추방에만 힘을 쏟는 등 반인권적이고 권위적인 대응을 고수하고 있어 한국 내 이주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한일 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한 현실은 더 이상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국가의 잘못된 방향과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와 교회가 앞장서서 공동의 역사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양국 국민 간의 이해와 화해, 치유와 화합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존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불평등과 차별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미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곧 2024 韓 · 日 · 在日교회 URM-이주민 국제심포지엄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 고백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동의 과제를 함께 감당해 갈 것을 분명히 한다.

1) 우리는 한 · 일 · 재일교회는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잘못된 역사를 직시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는 나라가 될 것을 다짐한 일본국 헌법 전문의 구체화인 헌법 9조를 수호하기 위해 힘을 다해 연대할 것이다.

2) 우리는 韓 · 日 · 在日교회는 글로벌 기업이 타국의 노동자를 차별하고 반인권적 행위를 일삼는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앙양심에 따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마땅히 보장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특히 닛토덴코(日東電工)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와 긴밀히 연대하며 저들의 지위 회복과 인간 존엄의 회복을 지원할 것이다.

3) 우리는 韓 · 日 · 在日교회는 일본의 영주자격 취소 법안 추진이 철회되고, 한국의 계절노동자 등 이주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며 연대할 것이다. 또한 극도로 낮은 난민 인정률에서 보여지듯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난민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한일 양국 정부를 향해 난민 인정 제도 개선 및 인종차별 철폐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4) 우리는 韓 · 日 · 在日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등 각종 차별과 혐오로 고통 받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연대해 나갈 것이다.

5) 우리는 우리는 이번에 확인된 공동의 과제에 대한 대응과 韓 · 日 · 在日교회의 상호 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해 2025년 이주민협의회와 2026년 URM협의회를 각각 일본에서 개최하고, 2027년 한국에서 URM-이주민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24년 5월 15일

2024 韓 · 日 · 在日교회 URM-이주민 국제심포지엄 참가자 일동